

# 家計資産分布와 所得再分配

朱 鶴 中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分析方法의 理論的 設定
- III. 家計資産의 規模와 分布狀態
- IV.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
- V. 要約 및 結論

## I. 問題의 提起

經濟理論의 體系에 있어서 消費는 편의상 순간적(instantaneously)으로 消費되는 것으로서 假定되어 있다. 이러한 前提 아래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는 궁극적으로 個人이 消費를 통하여 享有하는 生活 또는 福祉水準의 分布를 究明하기 위하여 所得을 그 分析의 대상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經濟生活이 高度化되고 消費者의 欲求가 多樣해짐에 따라 消費支出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投資의 성격을 지니게 되면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는 非消費的 支出의 영향을 감안한 所得分配研究로 확산되어야 한다<sup>1)</sup>.

일반적으로 家計의 消費支出 가운데 非消費的 支出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養育費 및 教育費와 住宅 및 耐久消費財의 購入費 등이다. 前者는 人的資本形成의 投資의 支出로서 近年에 人的資本論者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sup>2)</sup>. 所得分配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支出이 중요시되는 것은 이것이 非消費的 支出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世代間의 所得分配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國民所得計定에 住宅購入費는 통상적으로 資本的 支出로 처리되고 있으나 耐久消費財는 모두 消費的 支出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分析의 처리는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規模나 種類가 작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오늘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 1) 朱鶴中,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所得의 概念과 決定要因」, 朱鶴中 編『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80, 1979, pp.32~42 參照.
- 2) Gray S. Becker,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1962, 77(5), Part 2, pp.9~49.  
—, *Human Capital*, New York; NBER, 1964.

날과 같이 家具, 家電製品, 乘用車 등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高價일 경우 分析上 看過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支出은 購入하는 時點에 발생하나 耐久財에서의 서비스의 흐름 또는 換價所得(imputed income)은 耐用年數期間에 걸쳐 발생한다.

所得分配라는 관점에서 支出과 消費의 時差는 한 時點에 있어서 生活水準으로서 所得의 調整뿐만 아니라 한 個人이나 家口の 生の 週期에 따라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과 便益의 흐름을 달리하여 한 世代의 内部的 所得再分配(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의 효과를, 한 개인의 死亡이나 家口の 소멸과 耐久消費財의 耐用年數의 차이에 따라 世代間的 再分配(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의 효과를 유발한다. 이상과 같이 所得分配의 문제를 消費水準으로 焦點을 맞추고 教育 및 養育費와 耐久財 購入費 등을 資本的 支出로서 취급한다면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는 이러한 角度에서 調整되어야 한다.

이 論文에서 主題로 하고 있는 家計資産과 所得再分配는 住宅과 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 支出을 資本的 支出로 처리하여 所得階層間的 生涯所得에 대한 再分配效果를 實證的으로 分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分析的 목적에 따라 이 論文은 세부분으로 構成되어 있다. 첫째는 家計資産과 所得再分配에 관한 理論的 分析의 構圖과 이를 制約하는 可用資料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두번째로 1977년 國富調査의 일환으로 실시된 家計資産의 資料를 이용하여 所得階層別·年齡階層別 家計資産分布의 推定結果를 제시하여 分析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分析의 구도에 따라 家計資産의 所有가 所得階層과 家口主의 年齡週期에

미치는 所得再分配效果를 음미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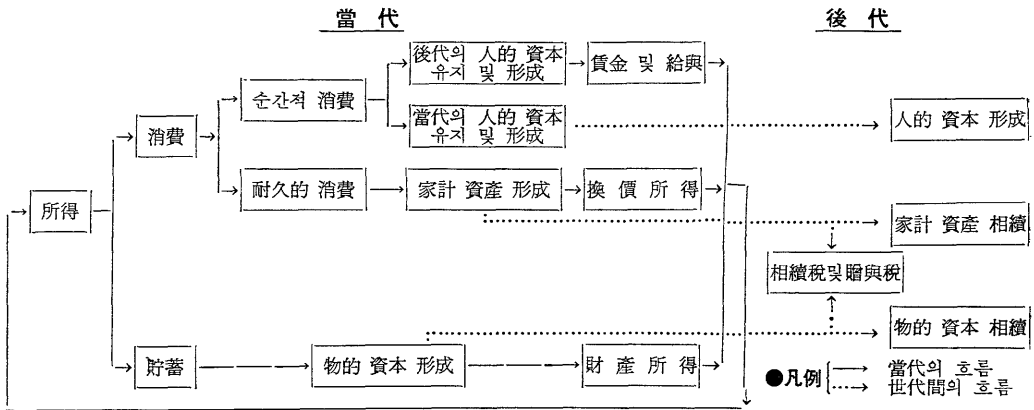
## II. 分析方法의 理論的 設定

어떠한 實證的 研究에 있어서 理論的 分析 方法을 設定하는데 制約하는 要因의 하나는 可用資料와 그 性格이다. 家計資産과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所得分配과 再分配에 있어서 家計資産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實證的 研究가 可用資料의 制約으로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 分野의 하나이다. 여기에 제시된 理論的 分析의 設計도 이 分析의 基礎資料가 되는 國富調査의 家計資産調査와 家計調査의 內容과 性格을 감안하여 設定된 것이다. 그러므로 後述할 理論的 分析方法이 미흡하고 결함이 있다면 可用資料의 性格에 주로 起因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 1. 理論的 構圖

前述한 바와 같이 이 分析은 家計資産의 蓄積과 이에서 유발하는 換價所得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家計의 消費支出은 순간적 消費( $C_i$ : instantaneous consumption)와 耐久的 消費( $C_d$ : durable consumption)로 구분된다. 耐久的 消費 가운데는 住宅과 耐久消費財는 물론 後世의 人的資本形成을 위한 養育費와 教育도 포함된다. 後者에 대하여는 人的資本論者의 領域이고 經度研究(longitudinal studies)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分析에서는 除外하기로 하였다.

[圖 1] 所得, 消費, 貯蓄 및 資産의 分配論的 視角



人的資本形成에 대한 非消費의 支出을 除外할 수 있는 또하나의 論據는 過去時點에 있어서 그러한 支出은 現時點의 所得水準에 이미 反映되어 있기 때문에<sup>3)</sup> 「크로스 섉손」分析에서 제외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한 世代의 所得과 消費와 換價所得間의 關係를 나타내 보면 위의 [圖 1]과 같다.

통상적으로 家計所得( $Y$ )은 家計가 所有한 生産要素( $F_n$ )에 要素價格( $P_n$ )을 乘合한 金額, 즉,  $Y = \sum F_n P_n$ 이다.

이것을 支出面에서 보면  $Y = C + S$ 의 等式이 성립하며 消費支出을 순간적 消費( $C_1$ )와 耐久的 消費( $C_2$ )로 구분하면  $Y = C_1 + C_2 + S$ 로 표시할 수 있다. 편의상 여기서 耐久的 消費는

家計實物資産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再取得價額 家計實物資産( $A_k$ )은  $A_k = \sum C_d$ 로 표시된다<sup>4)</sup>.

家計實物資産은 貯量(stock)으로서 여기에서 發生하는 서비스의 흐름이 換價所得( $Y_i$ : imputed income)을 이룬다. 家計實物資産에서 發生하는 서비스의 흐름을 所得으로 換價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資産의 減價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資産取得과 使用間의 時差를 經濟的으로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등이다. 前者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定額法과 定率法이 있으나 家計資産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定率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後者에 대하여는 時差가 있는 수익이나 支出을 같은 時點에서 現價化하기 위하여 利子로써 割引率을 삼고 있으나 投資審査分析에서 흔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開發途上國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한 割引率의 선정이 어렵고 어떤 割引率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分析結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궁극적으로 消費를 목적하는 資産取得에 金利를 적용하여 評價하는 데 論議의 여지도 없지 않다<sup>5)</sup>.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方法論上에 다소

3) 家計資産分布의 研究에 있어서 收益資産도 물론 그 分析의 대상이 되나 이것은 저축을 통하여 형성되고 여기서 發生하는 所得도 또한 家計所得에 포함되어 있다.

4) 家計實物資産은 評價基準에 따라 再取得價額(repurchasing or gross value)과 再調達價額(replacement or net value)로 표현된다. 後者는 前者에서 減價償却을 差減한 것이다.

5) 金利를 인정하면 여기서  $n$ 년의 換價所得을 一定率, 즉  $(1+r)^n$ 로 곱하여 주면 되므로 分析에 근본적인 差異가 없다.

문제가 있으나<sup>6)</sup> 住宅에 대한 換價所得을 추정하는 方法을 그대로 적용하여 家計實物資產額의 減價償却額을 換價所得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家計實物資產에서 유발하는 換價所得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즉,  $i$ 財의 減價率을  $r_i$ 라고 하면  $Y_m = \sum A_{hi} \cdot r_i$ 가 된다.

주어진 時點에 있어서 家計實物資產의 換價所得( $Y_m$ )과 이에 대한 支出( $E_h$ )의 관계는 家計實物資產의 貯量과 消費形態에 따라  $E_h \leq Y_m$ 이 되며 이로써 家計所得을 調整하면  $\dot{Y} = Y - E_h + Y_m$ 이 된다. 여기에서 家計資產의 階層別所得再分配效果는 部分分析(partial analysis)으로서 통상적 所得( $Y$ )과 調整所得( $\dot{Y}$ )의 「지니」分配係數의 變化率로서 規定하였다<sup>7)</sup>.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貯量(stock)으로서의 家計資產은 반드시 한 家口가 當代에 蓄積한 것만이 아니고 父母의 死亡에 따른 家計資產의 相續도 이에 포함된다. 이것은 可用資料의 출처가 어느 한 時點의 조사로서 家計資產의 相續과 購入을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相續받은 家計資產이 이 分析結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없었다. 여기서 理論적으로 類推할 수 있는 것은 相續者의 所得水準에 비하여 家計資產所有額과 換價所得이 많은 반면 家計資產의 購入을 위한 消費支出은 낮을 것으로 豫想되어 再分配效果가 클

것으로 생각되거나 父母의 死亡을 豫想할 수 없고 核家族化와 子女間에 財産의 分割相續 傾向으로 보아 全般의인 所得階層別 分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生의 週期에 따른 家計實物資產의 所得再分配效果 分析은 消費行爲라는 觀點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하겠다. 生의 週期에 따라 같은 學歷과 職種의 從事者라 하더라도 所得이 변화하여 家口員의 質的·量的 構成, 生活의 必要, 消費의 選好 등의 변화에 따라 消費패턴도 변화한다. 또한 이에 따라 家計資產의 「소득」도 변화하게 된다. 生의 週期에 걸친 家計資產의 所得再分配效果를 理想的으로 糾明하려면 經度資料(longitudinal data)으로써 比較分析되어야 하나 그러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 섹션」資料의 年齡階層別 分類으로써 이를 類推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資料의 處理는 오늘날의 老齡家口主가 壯年期에 걸친 經濟社會與件이 오늘날 壯年期의 그것과 같다는 含蓄的 假定을 前提하고 있다. 물론 이 含蓄的 假定은 理論적으로 正當化시킬 수 없는 것이나 生의 週期를 통한 家計資產의 所得再分配效果를 檢證할 수 있는 하나의 實證의 示唆을 던져줄 것으로 본다.

## 2. 分析의 利用資料

家計資產의 測定方法으로서 一般的으로 推計資料의 種類에 따라 標本調査(sample survey), 相續稅資料(estate duty), 財産所得(investment income) 등 세가지 接近方法(approaches)을 들 수 있다<sup>8)</sup>. 이러한 接近方法을 이용한 家計資產推計結果는 家計資產의 包括範圍와 推定結果, 그 精度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여러가

6) John W. Kendrick, "Expanding Imputed Values in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5, No.4, Dec. 1979, pp.49~63.

7)  $Y$ 의 「지니」係數를  $g_0$ ,  $\dot{Y}$ 의 「지니」係數를  $g_1$ 라고 하면 「지니」再分配係數  $G$ 는

$$G = \frac{g_1 - g_0}{g_0} \times 100 \text{으로 定義된다.}$$

8) A.B. Atkinson and A.J. Harrison, "Wealth Distribution and Investment Income in Britain,"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0, No.2, June 1974, p.125.

지 長短點을 지닌다. 家計資産과 같이 比較的 實證分析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分野에 있어서 이를 처음 試圖할 경우 研究方向과 方法을 現實的으로 가장 크게 制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可用資料의 性格이다.

가령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된 現存하는 基礎資料로서 相續稅資料는 높은 인플레이 아래 資産評價의 非現實性, 免稅基準의 間歇的 調整, 稅務資料의 包括性缺如, 資産의 사망전에 分散되는 傾向 등으로 信憑性이 가장 희박한 資料이다. 가령 1979년 한 해에도 相續稅 徵收額은 300件的 50億원에 불과하고 이보다는 贈與稅가 12,900여건의 58億원으로 더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資料를 이용한 家計資産 推定結果는 課稅對象에서 除外된 家口의 資産 分布를 推定할 수 없다는 커다란 缺陷以外에도 상속된 家計資産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過少評價되었을 것으로 豫想된다. 財産所得에 의한 推計方法은 所得階層別 財産項目別 財産所得과 財産項目別 平均收益率에 관한 資料가 있어야 함은 물론 財産項目別 平均收益率의 安定성이 前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 前者에 대하여 基礎資料가 극히 미비한 가운데 하나의 과감한 推定이 있었을 뿐이고<sup>9)</sup> 後者에 대하여서는 그 變動幅이 엄청나게 커서 先進國에서와 같은 正常收益率을 前提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與件 아래 家計資産의 實證的 分析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方法은 標

本調査資料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種類가 있는 바 貯蓄調査와 國富調査의 家計資産 資料이다. 先進國에 있어서는 調査研究機關에서 貯蓄에 관한 標本調査가 實施되어 富의 分布가 推定된 경우도 있으나<sup>10)</sup> 우리나라의 경우 전혀 體系的인 調査가 實施되어 있지 않다. 標本調査資料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1968년과 1977년에 實施한 國富調査의 家計資産 調査資料이다.

1968年 家計調査資料는 所得에 관한 質問事項이 없기 때문에 家計資産의 資産階層別 分布狀態를 糾明하는 데 있어서 有用한 資料가 될 수 있으나 여기서 試圖하는 바와 같은 家計資産과 所得再分配를 관련시키는 데에는 利用할 수가 없다. 물론 1977年 國富家計調査의 所得은 정확하지는 못하나 家計資産을 所得階層別로 區分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問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國富調査資料의 根本的인 制約은 家計資産으로서 建物과 耐用年數 1年以上의 耐久財만을 調査對象으로 하고 그 以外の 收益財産과 金融資産이 除外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分析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은 狹意의 國富調査上 家計資産에 한정되어 있다.

家計資産의 所得分配와 再分配效果를 分析한다는 觀點에서 收益性財産이 除外된 資料上 制約은 所得資料에 財産所得이 包括되었기 때문에 크게 問題視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分析의 焦點은 [圖 1]에 明示한 바와 같이 國民所得計定이나 通常的인 經濟分析에서 消費的 支出로 看做되는 耐久的 消費財와 消費를 목적으로 하는 住宅에 대한 支出과 便益의 흐름을 比較함으로써 所得階層間과 家口主의 生의 週期를 통한 狹意의 家計資産의 所得

9) Irma Adelman, "Some Country Experience: Korea," H.B.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283.

10) H.F. Lydall and D.G. Tipping,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alth in Britain," *Bulletin of Oxford University Institu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23, No.1, Feb. 1961, pp.83~104.

分配와 再分配에 미치는 영향을 檢證하는 데 있으므로 家計資産의 한정적 規定은 分析上一貫性を 維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國富調査의 家計資産調査에서 多少 分析上에 問題가 되는 것은 再生産할 수 있는 家計의 有形固定資産에 한정한다는 國富의 概念으로 인해 垡地, 書畫, 골동품, 動植物 등의 家計資産이 除外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資産들의 評價에 따른 여러 問題를 勘案하던 調査에서의 除外가 家計資産의 短點인 동시에 推定値의 正確度を 높여 주는 長點이 되기도 한다.

끝으로 밝혀 둘 것은 國富調査의 調査項目이 龐大하기 때문에 家計資産을 資産品目の 價格에 따라 甲品目(1977年現在 時價 5,000원 이상)과 乙品目(5,000원 미만)으로 區分하여 總標本數 9,883家口中 7,980家口에 대하여는 甲品目を, 나머지 1,903家口에 대하여는 乙品目を 調査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 家計의 家計資産의 總額을 推定하기 위하여 甲乙品目 資産을 家口別로 合算할 便法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採擇된 便法은 두 標本에 다 같이 調査된 建物 및 附帶施設을 基準으로 하여 資産階層別 品目別 平均所有額을 각각 구하여 이를 合算함으로써 總家計資産 所有額을 구하였다. 이러한 便法에 含蓄된 假定이 多少 推定上에 誤差를 가할 危險性은 있으나 代案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理論의 根據나 實證의 事

例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便法의 援用이었음을 指摘해 둔다.

### Ⅲ. 家計資産의 規模와 分布狀態

#### 1. 家計資産의 規模와 構成

1977年末 현재 土地를 제외한 家計實物資産의 全國 家口當 平均所有額은 <表 1>과 같이 1977年價格을 基準으로한 再取得價額(gross value)과 再調達價額(net value)으로 각각 3,090千원과 1,403千원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그 중에 建物 및 附帶施設은 再取得價額으로 家計資産總額의 55.2%인 1,706千원, 再調達價額으로는 48.8%인 684千원에 이르며 耐久消費財 중에서 甲品目이 再取得價額으로 17.5%인 540千원, 再調達價額으로 21.2%인 297千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乙品目は 각각 27.3%인 844千원과 30.1%인 422千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再取得價額과 再調達價額으로 評價한 家計資産構成比의 차이는 建物 및 附帶施設의 耐用年數가 耐久消費財보다 상대적으로 길음으로써 <表 1> 下端에 나타난 換值率(conversion rate)<sup>12)</sup>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家口主의 職種에 따라 農家, 勤勞者家口, 自營業者家口로 3分類한 家計資産 所有額은 <表 1>의 下端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分類에 의하면 農家の 再取得價額 平均家計資産所有額은 3,549千원으로서 非農家の 平均値인 2,878千원보다 23.3%가 높다. 그러나 再調達價額으로 評價한 平均所有額은 非農家가 1,559

11) 이 推定額은 國富家計資産 調査結果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甲, 乙品目 耐久消費財가 별도로 조사되었고 이를 接續시키는 過程에서 基因한 것으로 그 差異가 크지 않고 階層別 및 年齡別로 細分化하여 分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밝혀둔다.

12) 換置率이란 再調達價額資産額에 대한 再取得價額資産額의 比率로서 이 比率이 1에 가까우면 耐用年數에 비하여 經過年數가 짧은 것을 意味하며 0에 가까울수록 所有資産이 耐用年數에 도달하여 낡은 것임을 나타낸다.

千원으로 農家の 1,062千원보다 훨씬 높다. 非農家を 勤勞者家口와 自營業者 家口로 구분 하던 前者의 再取得價額과 再調達價額 平均家計資産 所有額은 각각 2,690千원과 1,464千원 인데 비하여 後者の 그것은 각각 3,194千원과 1,719千원으로서 前者보다 17~19% 가량 많은 家計資産을 보유하고 있다.

資産項目別 構成을 보면 再取得價額으로 農家家計資産의 72.3%가 建物 및 附帶施設로서 非農家の 그것이 45.5%인데 비하여 크게 대조적이다. 勤勞者家口는 建物 및 附帶施設이

自營業者家口에 비하여 4.6%「포인트」 낮은 43.6%이며 이 차이는 耐久消費財 중 비교적 低價品인 乙品目에 의하여 補充되고 있다. 農家所有의 耐久消費財는 非農家の 그것에 비하여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은 반면 높은 住宅所有率과 그 價額으로써 相殺되어 再取得價額으로서는 農家の 平均家計資産額이 非農家を 上廻하고 있다.

再調達價額으로 評價한 職種別 家計資産額의 構成比는 農家の 建物 및 附帶施設의 換值率이 낮기 때문에 또는 經過年數가 상대적으로

〈表 1〉 資産項目別, 家口主職種別 家口當平均家計資産所有額 및 構成比(1977年)

(단위 : 千원, %)

	建物 및 附帶施設	耐久消費財			合 計
		甲 品 目	乙 品 目	小 計	
(再取得價額)					
全 國	1,706 (55.2)	540 (17.5)	844 (27.3)	1,384 (44.8)	3,090 (100.0)
農 家	2,565 (72.3)	339 (9.5)	645 (18.2)	984 (27.7)	3,549 (100.0)
非 農 家	1,310 (45.5)	632 (22.0)	936 (32.5)	1,568 (54.5)	2,878 (100.0)
勤 勞 者	1,173 (43.6)	589 (21.9)	928 (34.5)	1,517 (56.4)	2,690 (100.0)
自營業者	1,540 (48.2)	705 (22.1)	949 (29.7)	1,654 (51.8)	3,194 (100.0)
(再調達價額)					
全 國	684 (48.8)	297 (21.2)	422 (30.1)	719 (51.3)	1,403 (100.0)
農 家	570 (53.7)	170 (16.0)	322 (30.3)	492 (46.3)	1,062 (100.0)
非 農 家	735 (47.2)	356 (22.8)	468 (30.0)	824 (52.8)	1,559 (100.0)
勤 勞 者	664 (45.4)	336 (23.0)	464 (31.6)	800 (54.6)	1,464 (100.0)
自營業者	856 (49.8)	388 (22.6)	475 (27.6)	863 (50.2)	1,719 (100.0)
(換 值 率)					
全 國	40.1	55.0	50.0	51.9	45.4
農 家	22.2	50.0	50.2	59.1	29.9
非 農 家	56.1	56.3	50.0	52.6	54.2
勤 勞 者	56.6	57.1	50.0	52.7	54.4
自營業者	55.6	55.0	50.1	52.2	53.8

로 길기 때문에 平準化되는 경향이 있으나 農家の建物 및 附帶施設의 構成비가 非農家に 비하여 약 6%「포인트」 높은 반면 비교적 高價品인 甲品目 耐久消費財의 構成비가 非農家に 비하여 같은 비율 정도로 낮다. 農家와 非農家の 平均家計資産額이 再調達價額으로 평가하여 後者が 큰 것을 감안하면 家計資産을 이용하는 생활수준에 있어서 都農間の 차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以上과 같은 全國別, 地域別 및 職種別 平均家計資産額과 資産項目別 構成은 그 자체로서 家計資産의 規模와 構成을 알 수 있다는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分配問題에 있어서나 현실적 問題에 있어서 平均値는 대단히 制約的이어서 이에 該當되는 家口는 母集團의 극히 작은 部分에 불과하다. 따라서 上述한 바와 같은 家計資産의 概括的 考察을 前提로 하여 家計資産의 階層別 分布가 어떠한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 2. 所得階層別 資産分布

國富調査 家計資産調査에 調査된 家口所得을 基準으로 하여 所得階層別 家計資産分布를 集計하면 <表 2>와 같다. 所得階層別 全國家計資産分布는 再取得價額 基準으로 27.3/34.5의 十分位係數와 0.213의 「지니」係數로서 매우 集中度가 낮은 편이다. 再調達價額으로 評價한 같은 分布는 그 集中度가 十分位係數로서 21.3/41.0, 「지니」係數로서 0.308로 나타나 비교적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再調達價額 所得階層別 家計資産의 集中度는 같은 價額의

資産階層別 集中度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sup>13)</sup>. 이러한 차이는 家計資産의 所有額은 所得 이외에도 蓄積, 相續 등 다른 要因에 의하여 결정됨을 意味하고 있다.

### 가. 家口主 職種別 所得階層別 分布

所得階層別 家計資産의 分布를 家口主職種別로 分類하여 보면 <表 2>의 右端과 같이 集中度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장 分布가 集中的인 自營業者家口의 所得階層別 資産分布에서도 最下位 十分位の 平均資産額이 1,269千원이고 最高所得 十分位階層의 平均資産額은 8,493千원으로 約 6배에 이른다. 勤勞者家口의 分布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分布를 보여 最下位 十分位の 1,147千원에 비하여 最上位 十分位の 5,899千원으로 約 5배에 이른다. 職種別 家口 가운데 가장 家計資産分布가 고른 것은 農家家計이다.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最低所得階層의 家計資産 再取得價額이 最高所得階層의 그것의 47.31%에 이르고 있으며 下位 40%所得階層이 上位 20%所得階層보다 많은 家計資産을 所有하고 있다.

所得階層別 再調達價額 家計資産의 分布는 上厚下薄의 換值率 때문에 再取得價額으로 評價하였을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보다 集中的으로 변화한다.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全國의 「지니」係數와 十分位係數는 各各 0.213에서 0.308로, 27.3/34.5에서 21.3/41.0으로 되었다. 어떤 職種別家口라 하더라도 下位 40%階層의 再調達價額 資産占有率이 같은 再取得價額占有率보다 3%內外 減少한 데 비하여 上位 20%階層의 그것은 같은 比率程度의 增加가 있다. 이러한 上下所得階層의 資産占有率의 상

13) 資産階層別 全國「지니」係數는 再取得價額으로 0.414, 再調達價額으로 0.523이다.



〈表 2〉 所得階層別 家口主職種別 家計資産分布 및 集中度(1977年)

(단위 : 千원, %)

所得階層	全 國		農 家		非 農 家		勤 勞 者		自 營 業 者	
	金 額	占有率	金 額	占有率	金 額	占有率	金 額	占有率	金 額	占有率
(再取得價額)										
第 1 十分位	1,755	5.7	2,480	7.0	1,308	4.5	1,147	4.3	1,269	4.0
第 2 十分位	2,031	6.6	2,827	8.0	1,444	5.0	1,319	4.9	1,579	5.0
第 3 十分位	2,207	7.1	2,956	8.3	1,688	5.9	1,527	5.7	1,946	6.1
第 4 十分位	2,434	7.9	3,240	9.1	1,838	6.4	1,828	6.8	2,364	7.4
第 5 十分位	2,600	8.4	3,410	9.6	2,422	8.4	1,936	7.2	2,165	6.8
第 6 十分位	2,661	8.6	3,309	9.3	2,128	7.4	2,385	8.8	2,651	8.3
第 7 十分位	3,002	9.7	3,912	11.0	2,835	9.8	2,815	10.4	2,964	9.3
第 8 十分位	3,584	11.6	3,783	10.6	3,793	13.2	3,631	13.4	3,906	12.2
第 9 十分位	4,240	13.7	4,296	12.1	4,386	15.2	4,285	15.9	4,618	14.5
第 10 十分位	6,341	20.8	5,242	15.1	6,846	24.3	5,899	22.7	8,493	26.5
平 均	3,090	10.0	3,549	10.0	2,878	10.0	2,690	10.0	3,194	10.0
「치니」係 數	0.2128		0.1176		0.2944		0.2926		0.3058	
十分位分配率	27.3/34.5		32.4/27.2		21.8/39.5		21.7/38.6		22.5/41.0	
(再調達價額)										
第 1 十分位	571	4.1	611	5.7	543	3.5	460	3.1	506	2.9
第 2 十分位	712	5.1	786	7.4	686	4.4	616	4.2	733	4.3
第 3 十分位	811	5.8	804	7.6	778	5.0	484	4.7	1,005	5.9
第 4 十分位	882	6.3	980	9.2	917	5.9	931	6.3	1,140	6.6
第 5 十分位	1,022	7.3	943	8.9	1,240	7.9	1,047	7.1	1,015	5.9
第 6 十分位	1,194	8.5	966	9.1	1,152	7.4	1,316	9.0	1,399	8.1
第 7 十分位	1,325	9.4	1,204	11.3	1,528	9.8	1,511	10.3	1,582	9.2
第 8 十分位	1,776	12.7	1,085	10.2	2,185	14.0	2,089	14.2	2,235	13.0
第 9 十分位	2,241	16.0	1,440	13.5	2,591	16.6	2,551	17.4	2,725	15.9
第 10 十分位	3,465	25.0	1,786	17.2	3,914	25.6	3,560	23.8	4,865	28.2
平 均	1,403	10.0	1,062	10.0	1,559	10.0	1,464	10.0	1,719	10.0
「치니」係 數	0.3076		0.1648		0.3396		0.3392		0.3544	
十分位分配率	21.3/41.0		29.9/30.7		18.8/42.2		18.3/41.2		19.7/44.1	
(換 值 率)										
第 1 十分位	32.5		24.6		41.5		40.1		39.9	
第 2 十分位	35.1		27.8		47.5		46.7		46.4	
第 3 十分位	36.8		27.2		46.1		31.7		51.6	
第 4 十分位	36.2		30.3		49.9		50.9		48.2	
第 5 十分位	39.3		27.7		51.2		54.1		46.9	
第 6 十分位	44.9		29.2		54.1		55.2		52.8	
第 7 十分位	44.1		30.8		53.9		53.7		53.4	
第 8 十分位	49.6		28.7		57.6		57.5		57.2	
第 9 十分位	52.9		33.5		59.1		59.5		59.0	
第 10 十分位	54.6		34.1		57.2		60.4		57.3	
平 均	45.4		29.9		54.2		54.4		53.8	

대적 변화는 低所得階層의 資産占有率의 상대적 변화에서도 低所得階層의 家計資産은 一般的으로 그 耐用年數에 비하여 經過年數가 오래 되었고 高所得階層의 家計資産은 비교적 새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表 2〉에 나타나는 所得階層別 資産分布에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非農家の 第5十分位와 第6十分位所得階層의 資産所有額이 全般的인 趨勢에서 離脫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十分位의 勤勞者家口나 自營業者家口の 資産所有額은 所得階層에 따라 漸增하는 趨勢를 보이거나 이를 합한 非農家階層은 相反되는 數値가 나

타나 있다. 그 이유는 勤勞者家口와 自營業者家口の 調査標本數가 各各 4,237家口와 2,529家口로서 다르고 이를 所得規模에 따라 羅列하여 十分位로 區分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20代後半이나 30代初半의 大卒者인 家口主家計는 所得水準으로 보면 능히 所得階層으로 본 中産層에 分類될 수 있으나 所有한 家計資産額으로 보면 再取得價額으로 불과 2,254千원 내지 2,617千원으로서 낮은 資産階層에 屬하게 된다. 따라서 非農家の 第5十分位와 第6十分位所得階層이 所有한 資産額의 변화는 上述한 要因이 복합적으로 作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表 3〉 所得階層別 家口主職種別 家計資産構成比(1977年)

(단위 : %)

所得階層	全 國		農 家		非 農 家		勤 勞 者		自 營 業 者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建物 및 耐久 附帶施設 消費財
(再取得價額)										
第 1 十分位	69.0	31.0	79.0	21.0	57.9	42.1	50.3	49.7	59.7	40.3
第 2 十分位	64.4	35.6	73.0	27.0	45.8	54.2	40.9	59.1	52.2	47.8
第 3 十分位	62.9	37.1	75.5	24.5	46.6	53.4	42.4	57.6	52.8	47.2
第 4 十分位	61.5	38.5	75.2	24.8	41.7	58.3	39.8	60.2	53.0	47.0
第 5 十分位	57.3	42.7	73.0	27.0	44.7	55.3	37.5	62.5	43.0	57.0
第 6 十分位	53.1	46.9	73.2	26.8	37.2	62.8	41.5	58.5	42.0	58.0
第 7 十分位	53.6	46.4	71.5	28.5	42.5	57.5	42.4	57.6	44.7	55.3
第 8 十分位	51.7	48.3	72.2	27.8	45.8	54.2	45.0	55.0	45.2	54.8
第 9 十分位	50.7	49.3	69.8	30.2	45.3	54.7	45.1	54.9	46.4	53.6
第 10 十分位	49.2	50.8	64.6	35.4	47.8	52.2	45.8	54.2	50.2	49.8
平 均	55.2	44.8	72.3	27.7	45.5	54.5	43.6	56.4	48.2	51.8
(再調達價額)										
第 1 十分位	52.9	47.1	59.2	40.8	49.5	50.5	37.6	62.4	49.8	50.2
第 2 十分位	49.4	50.6	59.7	40.3	42.3	57.7	35.1	64.9	48.3	51.7
第 3 十分位	49.3	50.7	55.6	44.4	40.7	59.3	33.6	66.4	54.2	45.8
第 4 十分位	45.7	54.3	59.6	40.4	39.6	60.4	37.9	62.1	50.5	49.5
第 5 十分位	44.3	55.7	51.3	48.7	43.1	56.9	39.2	60.8	36.9	63.1
第 6 十分位	45.7	54.3	54.8	45.2	38.7	61.3	43.6	56.4	42.3	57.7
第 7 十分位	45.0	55.0	53.6	46.4	43.6	56.4	42.7	57.3	46.2	53.8
第 8 十分位	48.9	51.1	52.4	47.6	50.0	50.0	49.0	51.0	49.5	50.5
第 9 十分位	50.7	49.3	54.4	45.6	50.9	49.1	51.3	48.7	51.1	48.9
第 10 十分位	50.8	49.2	45.9	54.1	51.9	48.1	52.4	47.6	54.5	45.5
平 均	48.7	51.3	53.7	46.3	47.1	52.9	45.4	54.6	51.4	48.6

#### 나. 家口主 職種別 家計資産의 構成

所得階層에 따라 資産所有額뿐만 아니라 資産構成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豫想된다. <表 3>은 所得階層別 家口主職種別 再取得價額 家計資産構成比를 나타내고 있다. 全國分布의 家計資産構成比도 低所得階層에서 高所得階層에 이르기까지 建物 및 附帶施設의 構成比가 第1十分位所得階層의 69.0%에서 第10十分位階層의 49.2%로 漸次 減少되는 反面 耐久消費財의 構成比는 第1十分位所得階層의 31.0%에서 第10十分位階層의 50.8로 增加하는 傾向을 띠고 있다. 家口主職種別로 보면 農家の 再取得價額構成比가 그 水準에는 차이가 있으나 所得水準에 따라 같이 增減하는 一般의 傾向을 나타낸다. 그러나 勤勞者와 自營業者家口는 建物 및 附帶施設의 構成比가 所得階層에 따라 中位所得階層까지 떨어졌다가 增加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後者の 경우는 所得은 낮으나 資産所有額이 많은 高齡者家口와 所得水準은 높으나 資産所有額이 작은 比較적 소득이 많은 大卒者核家族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再調達價額으로 評價된 家計資産의 構成比는 家計資産의 耐用年數와 經過年數의 차이에 따라 再取得價額 資産構成比와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表 3>과 같이 耐久消費財의 全國構成比는 中位所得階層까지 增加하였다가 다시 減少되는 뚜렷한 傾向을 나타내나 家口主職種別로 分類할 때 所得階層別 頂點이 일정하지 않다. 勤勞者의 경우 構成比로 본 耐久消費財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가진 所得階層이 제3十分位이고 高所得階層일수록 建物 및 附帶施設의 比率이 많아지고 自營業者의

경우도 그 頂點이 第3十分位所得階層과 最高所得階層 兩便에 있으며 農家の 경우는 일정한 類型을 찾아 볼 수 없다.

### 3. 家口主 年齡階層別 資産分布

家口主 年齡階層別로 본 家計資産分布의 全國 家口當 平均額은 <表 4>의 左端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再取得價額으로 24歲 이하의 1,638千원에서 45~49歲의 3,731千원으로 增加하였다가 점차 減少하여 65歲以上の 3,196千원으로 減少한다. 年齡階層의 增加幅은 24歲以下부터와 40~44歲에 이르는 年齡階層이 한 階層間 400千원 내지 500千원의 현저한 增加를 보이고 40歲以後 64歲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65歲以後 減少幅이 매우 크다. 그러나 65歲以上 家口主의 所有額의 絕對規模는 30代後半의 家口主의 그것과 비슷한 水準이다.

再調達價額으로 評價한 家計資産의 家口主 年齡階層別 分布는 그 頂點이 1,649千원으로 40代初半에 있고 이 年齡階層以前의 增加幅이 큰 데 비하여 그 이후 60代初半까지의 減少幅은 30代初半以後의 增加幅과 비슷하다가 60代後半에 이르면 急激하게 減少한다(<表 4>의 左端을 參照). 이러한 現象은 所有資産의 老朽化現象과 分家に 따르는 資産의 贈與등에 基因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老齡家口主家口에는 機能的으로 家計資産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資産을 所有하고 있으나 상당히 減價償却된 남은 家屋과 耐久消費財임을 否認할 수 없다.

#### 가. 家口主 職種別 分布

家計資産分布를 家口主의 職種에 따라 年齡

階層別로 分類集計한 결과가 <表 4>에 나타나 있다. 再取得價額으로 評價한 家計資産分布는 前述한 바와 같이 農家가 平均 3,549千원으로 가장 많고 資産所有가 가장 적은 20代의 3,200

千원 内外에서 가장 많은 40~50代의 3,600千원 内外에 이르는 農家家計資産의 年齡階層別 分布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平準化된 狀態이다. 이러한 農家家計資産의 年齡階層別 分布는

<表 4> 家口主年齡階層別 家口主職種別 家計資産分布(1977年)  
(단위:千원)

年齡階層	全 國	農 家	非 農 家	勤 勞 者		自 營 業 者	
				勤 勞 者	自 營 業 者		
(再取得價額)							
24歲 以下	1,638	3,290	1,454	1,537	1,245		
25歲~29歲	2,254	3,169	2,126	2,160	2,011		
30歲~34歲	2,617	3,377	2,461	2,456	2,475		
35歲~39歲	3,031	3,508	2,852	2,737	3,070		
40歲~44歲	3,534	3,622	3,491	3,271	3,862		
45歲~49歲	3,751	3,647	3,819	3,437	4,393		
50歲~54歲	3,618	3,555	3,672	3,590	3,746		
55歲~59歲	3,659	3,687	3,629	3,374	3,803		
60歲~64歲	3,546	3,631	3,428	2,885	3,594		
65歲 以上	3,196	3,426	2,902	3,308	2,819		
平 均	3,089	3,549	2,878	2,688	3,193		
(再調達價額)							
24歲 以下	791	1,061	761	799	665		
25歲~29歲	1,184	1,015	1,208	1,227	1,140		
30歲~34歲	1,403	1,118	1,461	1,459	1,466		
35歲~39歲	1,503	1,160	1,632	1,567	1,754		
40歲~44歲	1,649	1,052	1,939	1,777	2,215		
45歲~49歲	1,625	1,151	1,930	1,738	2,219		
50歲~54歲	1,436	982	1,821	1,668	1,959		
55歲~59歲	1,392	982	1,833	1,658	1,953		
60歲~64歲	1,386	1,138	1,728	1,466	1,809		
65歲 以上	1,011	876	1,184	1,058	1,210		
平 均	1,402	1,062	1,559	1,464	1,719		
(換 值 率)							
24歲 以下	48.29	32.25	52.34	51.98	53.41		
25歲~29歲	52.53	32.03	56.82	56.81	56.69		
30歲~34歲	53.61	33.11	59.37	59.41	59.23		
35歲~39歲	49.59	33.07	57.22	57.25	57.13		
40歲~44歲	46.66	29.04	55.54	54.33	57.35		
45歲~49歲	43.32	31.56	50.54	50.57	50.51		
50歲~54歲	39.69	27.62	49.59	46.46	52.30		
55歲~59歲	38.04	26.63	50.51	49.14	51.35		
60歲~64歲	39.09	31.34	50.41	50.81	50.33		
65歲 以上	31.63	25.57	40.80	31.98	42.32		
平 均	32.73	29.92	54.17	54.46	53.84		

農家所得分布의 상대적 衡平性과 生活行態의 同質性 및 높은 自家保有率에 의하여 결과한 것으로 보인다.

反面에 非農家家口의 年齡階層別 資産分布는 상대적으로 큰 起伏을 나타내고 있다. 豫想할 수 있는 바와 같이 自營業者家口의 平均 資産所有額은 3,193千원으로 勤勞者家口의 2,688千원보다 約 20% 많고 勤勞者家口 資産分布보다 集中度도 높다. 즉, 自營業者家口 가운데 家計資産이 제일 작은 年齡階層은 24歲以下로서 平均 1,245千원이나 가장 많은 年齡階層은 40代後半으로 4,393千원으로서 어느 職種の 年齡階層보다도 높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20代家口主의 自營業者家口의 平均 資産所有額이 같은 年齡階層의 勤勞者家口보다도 작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이 年齡階層에 零細自營業者로서 사업확장에 노력하는 階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勤勞者家口 가운데 平均 資産所有額이 많은 階層은 50代初半으로서 3,590千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4歲以下の 家口主家計는 그 절반도 되지않는 1,537千원이며 60代는 3,000千원 内外이다. 勤勞者家口의 資産所有額은 50~54歲年齡階層을 除外하고는 再取得價額으로 評價한 農家資産所有額이 一般的으로 높은 것이 注目할 만하다.

家計資産의 評價基準을 再調達價格으로 하여 職種別로 보면 自營業者家口의 平均이 1,719千원으로 가장 많고 勤勞者家口의 平均이 1,464千원이며 農家家口의 그것이 가장 낮은 1,062千원이 되어 이에 따라 年齡階層別 職種別 資産分布에도 다소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再取得價額으로 評價하여 최대의 資産額을 所有한 非農家の 家口主 年齡階層을 除外하고

家口主年齡別 農家の 資産所有額이 컸으나 再調達價額으로는 資産所有額이 제일 작은 24歲以下の 農家 家口主階層을 除外하고는 農家 平均 資産所有額이 모든 年齡階層의 非農家에 비하여 작다. 이것은 農家所有資産, 특히 建物の 經過年數가 상대적으로 길고 換值率이 낮음을 意味한다. 둘째로 勤勞者家口와 自營業者家口 가운데 年齡階層別 資産所有額이 가장 큰 年齡階層이 自營業者家口의 경우 40代後半이나 勤勞者家口의 경우는 5年 내지 10年 앞당겨져 있다. 끝으로 어떤 職種을 莫論하고 再調達價額으로 評價한 家口主 年齡階層別 資産分布가 再取得價額基準으로 評價한 그것보다 分布의 集中度와 尖度(Kurtosis)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時間의 흐름에 따르는 資産의 形成, 蓄積 및 消滅하는 耐久資産이라는 性格에 의하여 크게 작용될 것으로 解釋된다.

#### 나. 家計資産의 構成

資産項目構成을 보면 農家に 家計資産의 大宗을 차지하는 것이 建物 및 附屬設備로서 平均적으로 72.25%를 차지하고 비교적 高價耐久消費財라고 할 수 있는 甲品目的 比重은 불과 9.5%이다. 年齡階層分布의 農家資産構成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乙品目 耐久消費財의 絕對額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建物과 甲品目 耐久消費財의 年齡階層別 所有額이 資産構成의 變化를 支配하고 있다는 것이다. 反面 勤勞者家口나 自營業者家口의 資産構成의 年齡階層別 住宅과 甲品目耐久消費財 所有額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自營業者家口인 경우 가장 많은 資産을 所有하는 年齡階層인 40代後半의 家口主家口는 가장 적은

家計資産을 所有한 20代初半의 家口主家口에 비하여 約 4倍의 建物과 甲品目耐久消費財를 지니고 있으며 耐久消費財의 所有額이 40代初半까지 建物所有額보다 많은 傾向을 띠고 있다. 勤勞者家口의 경우에는 資産所有額이 가장 많은 50代初半이 가장 적은 資産을 所有한 20代初半年齡의 家口主家口보다 約 3倍에 이르는 같은 傾向을 보이거나 乙品目耐久消費財의 所有額은 兩極端의 年齡階層을 除外하고는 거의 같은 水準의 資産을 所有한 것이 그 特徵이라 하겠다.

再調達價額으로 評價한 家口主 年齡階層別

資産項目의 構成은 農家に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家計資産中에서 차지하는 建物の比重이 모든 家口主 年齡階層에서 70% 内外에서 50여%로 減少되고 高齡者 家口主의 경우는 50%를 上廻하는 경우도 있다. 勤勞者家口에 있어서는 50代後半을 除外한 모든 年齡階層에서 建物 및 附屬設備의 構成額이 耐久消費財 所有額보다 작은 대조적인 現象이 나타나고 특히 家口主가 30代初半以前과 60代以後인 家口의 耐久消費財比率이 매우 높은 것은 注目할 만하다. 年齡階層 및 自營業者家口의 再調達價額 資産構成比도 같은 傾向을 보이거나

〈表 5〉 年齡階層別 家口主職種別 家計資産構成比

(단위 : %)

年齡階層	全 國		農 家		非 農 家		勤 勞 者		自 營 業 者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建物 및 耐久消費財
(再取得價額)										
24歲 以下	46.9	53.1	72.5	27.5	40.5	59.5	41.6	58.4	37.2	62.8
25歲 ~ 29歲	36.9	63.1	69.8	30.2	30.1	69.9	30.5	69.5	28.8	71.2
30歲 ~ 34歲	43.1	56.9	70.7	29.3	35.3	64.7	35.5	64.5	34.7	65.3
35歲 ~ 39歲	52.4	47.6	72.0	28.0	43.3	56.7	43.7	56.3	47.3	57.3
40歲 ~ 44歲	58.0	42.0	72.9	27.1	50.5	49.5	50.6	49.4	50.3	49.7
45歲 ~ 49歲	57.8	42.2	71.0	29.0	49.7	50.3	48.1	51.9	51.6	48.4
50歲 ~ 54歲	60.9	39.1	73.2	26.8	50.8	49.2	53.3	46.7	48.7	51.3
55歲 ~ 59歲	64.4	35.6	73.0	27.0	55.1	44.9	54.5	45.5	55.4	44.6
60歲 ~ 64歲	66.4	33.6	72.0	28.0	58.1	41.9	47.0	53.0	60.8	39.2
65歲 以上	70.6	29.4	74.2	25.8	65.3	34.7	63.4	36.6	65.7	34.3
平 均	55.2	44.8	72.3	27.7	45.5	54.5	43.6	56.4	48.2	51.8
(再調達價額)										
24歲 以下	42.6	57.4	56.3	43.7	40.5	59.5	41.2	58.8	38.5	61.5
25歲 ~ 29歲	33.0	67.0	51.1	48.9	30.9	69.1	31.1	68.9	30.2	69.8
30歲 ~ 34歲	42.8	57.2	55.2	44.8	40.9	59.1	41.2	58.8	40.0	60.0
35歲 ~ 39歲	50.0	50.0	57.8	42.2	48.0	52.0	48.5	51.5	49.0	51.0
40歲 ~ 44歲	54.2	45.8	54.2	45.8	54.2	45.8	53.8	46.2	54.9	45.1
45歲 ~ 49歲	51.1	48.9	53.7	46.3	50.0	50.0	47.5	52.5	53.0	47.0
50歲 ~ 54歲	48.7	51.3	51.2	48.8	47.6	52.4	49.1	50.9	46.3	53.7
55歲 ~ 59歲	53.6	46.4	49.2	50.8	56.1	43.9	55.2	44.8	56.6	43.4
60歲 ~ 64歲	57.1	42.9	56.1	43.9	58.0	42.0	42.8	57.2	61.8	38.2
65歲 以上	54.3	45.7	49.7	50.3	58.7	41.3	42.2	57.8	61.6	38.4
平 均	48.7	51.3	53.7	46.3	47.1	52.9	45.4	54.6	51.4	48.6

大企業의 自營業者가 高齡者中에 많기 때문에 建物 및 附帶施設의 比重이 다른 資産項目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反面 30代初半以下の 年齡階層 家口主 家計는 零細 및 小規模 自營業者家口の 影響으로 建物の 比重이 매우 낮다.

料가운데 分析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所得階層別 資料로서 都市勤勞者와 農家家計調査이며 年齡階層別 資料로서는 都市勤勞者 家計調査만이 이용 가능하다. 資料의 制約으로 分析을 더 확대하지 못하나 家計資産이 所得分配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示唆을 얻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 N.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

### 1. 所得階層別 再分配

前述한 바와 같이 家計資産의 所有는 일정한 家計資産의 서비스의 흐름이 派生하여 換價所得이 되고 家計所得의 일부는 家計資産을 購入하기 위한 費用의 흐름을 創出한다. 따라서 이 分析을 完了하기에는 家計支出資料가 所要되는 바 이에 관련된 資料로서는 都市와 農家家計資料를 이용하였다. 現存하는 家計資

所得階層別로 都市勤勞者와 農家家計의 家計資産의 서비스와 그에 대한 支出을 加減한 調整所得과 그의 分配係數는 <表 6>에 要約된 바와 같다. 都市勤勞者家計에 있어서 家計資産의 所得分配效果는 극히 微微한 狀態이다. 調整前 所得分配는 十分位 分配率과 「지니」係數로 各各 19.89/41.26과 0.325이나 調整後 所

<表 6> 農家와 都市勤勞者家計에 대한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1977年)

(단위 : 千원, %)

所得階層	農 家				都市勤勞者家計			
	調整前所得		家計資産調整所得		調整前所得		家計資産調整所得	
	金額	占有率	金額	占有率	金額	占有率	金額	占有率
第1十分位	344	3.06	356.5	3.15	503	3.12	489.8	3.12
第2十分位	521	4.63	530.9	4.70	740	4.59	724.4	4.61
第3十分位	629	5.59	632.4	5.59	901	5.58	874.4	5.57
第4十分位	736	6.54	749.3	6.63	1,065	6.60	1,032.8	6.58
第5十分位	851	7.56	857.6	7.58	1,227	7.60	1,182.6	7.53
第6十分位	975	8.66	980.0	8.67	1,414	8.76	1,386.1	8.82
第7十分位	1,136	10.09	1,152.7	10.19	1,655	10.26	1,610.7	10.25
第8十分位	1,359	12.07	1,351.9	11.96	1,974	12.23	1,908.1	12.15
第9十分位	1,716	15.25	1,725.8	15.26	2,511	15.56	2,448.7	15.59
第10十分位	2,989	26.55	2,970.6	26.27	4,148	25.70	4,051.4	25.79
平均	1,122	10.00	1,127.2	10.00	1,611	10.00	1,590.8	10.00
「지니」係數	0.330		0.326		0.325		0.326	
十分位分配率	19.82/41.80		20.07/41.53		19.89/41.26		19.88/41.38	
「지니」再分配指數	1.30				-0.18			

得分配는 各各 19.88/41.38과 0.326이다. 이를 「지니」再分配指數로서 보면 -0.18「퍼센테이지 포인트」以下の 再分配效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都市勤勞者 家計의 家計資産의 蓄積 그 耐用年數와 經過年數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換價所得에 비하여 現時點의 家計資産에 대한 支出이 비교적 커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거의 무시할 程度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表 6〉의 左端에 나타난 바와 같이 農家家計에 있어서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는 都市勤勞者 家計에 비하여 보다 크게 나타났다. 農家家計의 調整前後 所得分配係數는 十分位係數로서 19.82/41.80에서 20.07/41.53으로, 「지니」係數로서 0.330에서 0.326으로 改善되고 있다. 「지니」再分配指數는 1.3「퍼센테이지 포인트」로서 都市勤勞者家計의 -0.18「퍼센테이지 포인트」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農家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라 하더라도 農地稅나 糧穀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14)</sup>.

여기에서 吟味하여야 할 것은 첫째, 農家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가 都市勤勞者家計의 그것보다 높은 이유와 둘째,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에 대한 變動方向이다, 農家に 있어서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가 큰 것은 都市勤勞者 家計에 비하여 所得階層別 家計資産分布가 보다 均霑된 데 있다. 〈表 2〉에 要約된 바와 같이 都市勤勞者 家計資産의 「지니」集

中係數는 再取得價額으로 0.293인 데 비하여 農家家計의 그것은 0.118이다. 이러한 家計資産 集中現象의 차이는 農家の 住宅所有率이 都市勤勞者家口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따라서 農家の 경우 低所得階層이나 高所得階層에 있어서 資産構成比에 큰 차이가 없으나 低所得 都市勤勞者 家計의 경우에는 家計資産의 대부분이 耐久消費財로서 構成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再取得價額으로 評價한 住宅 및 構築物의 比重이 대단히 높아 같은 評價基準의 農家家計資産 平均所有額이 都市勤勞者의 그것을 上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人口의 都市集中化에 따라 農村人口가 繼續 減少하고 都市勤勞者 家口가 增大되어 住宅保有率이 계속 낮아지면 家計資産은 所得再分配에 대하여 逆機能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1977年 現在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이 미미하거나 또는 中立的이라는 分析結果가 앞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變數의 動向이 갖는 複合作用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家計資産의 서비스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分析時點에 있어서 家計資産의 蓄積量과 耐用年數와 經過年數이다<sup>15)</sup>. 우리나라에 있어서 住宅과 附帶施設을 除外한 家計資産의 蓄積이 비뚤된 것은 극히 近年에 이르러 일어나는 現象이며 그 耐用年數도 극히 짧은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現象은 오늘날까지 家計消費支出面에서 비교적 높은 「엔젤」係數와 낮은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比率로 나타나 있다. 反面에 近年에 이르러 크게 普及되고 있는 텔레비, 家電製品, 冷藏庫, 세탁기 등 各種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額은 國富調査 當時時點에 있어서

14) 朱鶴中, 「農業租稅 및 補助金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開發研究』, 1979 가을호, pp.50~57 參照.

15) 本文 p.49~51 參照.



家計資産의 蓄積量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결과적으로는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를 크게 相殺한 것으로 解釋된다.

이 論文에서와 같은 分析이 試圖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假說이 實證的 妥當性 이 있는지의 與否를 外國의 分析事例로써 引用할 수 없다. 그러나 이 假說의 實證的 妥當性을 部分的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日本의 事例로서 1970年 勤勞者家計의 再調達價額 家計資産「지니」集中度는 土地를 포함하여도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0.209에 불과하다<sup>16)</sup>. 이와 같은 家計資産所有의 平準化傾向은 상대적으로 높은 住宅所有率과 冷蔵庫, 洗濯機, 電話, 스테레오, 自動車 등의 普及率이 低所得階層에도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고 하겠다<sup>17)</sup>.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家計資産의 普及이 高所得階層으로부터 이루어졌고 이것이 低所得階層으로 擴散되는 段階에 놓여 있기 때문에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 이 미진한 것이라고 하겠다.

## 2. 家口主 年齡階層別 再分配

家計資産에 대한 需要와 그 蓄積은 生의 周期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新婚으로 家庭을 形成한 가구는 子女의 出産 및 成長에 따라 耐久消費財의 需要가 증가하고 生活安定과 向上 또는 壯年期의 相續 등으로 家計資産의 축적이 계속되며 老年기에 子女의 成婚과

老後의 活動範圍의 축소로 家計資産의 需要가 減少된다. 이에 따라 家計資産에 대한 支出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便益 또는 換價所得에 차이가 발생하여 所得再分配效果를 지닌다. 이상적으로 이와 같은 分析은 가구주의 生涯를 經度分析(longitudinal analysis)하여야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資料의 制約으로 「크로스 섹션」分析으로 再分配效果를 吟味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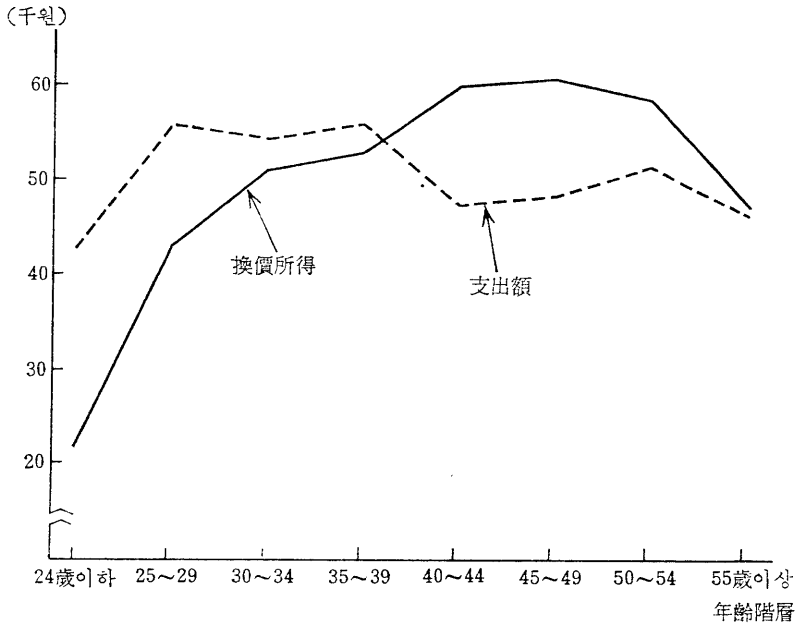
前述한 分析方法에 따라 都市勤勞者家口의 家口主 年齡別 耐久消費財에 대한 지출과 換價所得을 圖表로 표시하면 [圖 2]와 같다. 家口主의 年齡이 40歲 이전에는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이 그 便益의 흐름에 비하여 크고, 그 이후에 反對現象이 발생한다. 支出과 便益의 乖離는 가구주 年齡에 따르는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을 나타낸다.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이 가장 큰 것은 20代初半이며 40代의 그것도 注目할 만하다. 20代初半의 家口主家計는 家口所得이 상대적으로 작으나 1人當 家口所得이 높아 家口員數를 감안한 所得分配에 나쁜 영향을 미치나,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이 높은 反面에 그 便益의 흐름이 작아 所得平準化에 좋은 작용을 가한다. 反面, 40代의 家口主家計는 教育費와 子女扶養費가 加重되어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이 작고 家計資産의 便益이 커 이 두가지를 감안한 家口所得은 通常의인 의미의 所得보다 높아 家計資産은 所得再分配機能을 지닌다.

이 圖表에서 豫想했던 것보다 특이한 것은 50代 家口主家計의 耐久消費財支出이 예상보다 높고 50代後半의 家口主家計의 耐久消費財의 便益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는 40代에 있어서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이 비교적 낮아 耐久消費財의 需要가 축적되었을 가

16) 日本의 1970年 國富調査 家計資産報告書와 經濟企劃廳 總合計劃局의 資産分配에 관한 資料로서 試算한 결과이다.

17)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生活白書』, 1979에 의하면 最低所得階層에 대한 普及率도 冷蔵庫, 洗濯機 등은 93% 이상, 電話 82%, 自動車 45%에 이르고 있다.

〔圖 2〕 勞働者家計의 耐久財家計資産에 의한 換價所得과 支出(1977年)



능성이 있고, 子女의 婚需用 耐久財購入이 작용을 미친 듯하다. 이러한 이유가 50代後半에 있어서 耐久消費財의 便益의 급격한 減少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建物を 포함한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은 <表 7>과 같이 耐久消費財의 그것과 같이 所得再分配機能은 있으나 多少 다른 樣相을

나타낸다. 그것은 家計資産 調整前後의 年齡階層別 所得에 있어서 支出과 便益의 分岐點이 30歲와 50歲 前後의 두 時點에 있다는 것이다. 즉, 家口主年齡이 50歲에 이르기까지는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이 多少 있으나 50代以後에는 거의 中立의인 狀態라고 하겠다. 이는 耐久消費財와는 다른, 住宅을 포함한 家

〈表 7〉 都市勤勞者家計資産의 年齡階層에 대한 所得再分配效果(1977年)  
(단위: 千圓, %)

家口主 年齡階層	調整前 所得		家計資産調整所得		占有率差異 (2)-(1)
	金額	占有率(1)	金額	占有率(2)	
24歲 以下	1,098	5.46	954.1	5.26	-0.20
25歲~29歲	1,466	14.23	1,312.7	14.12	-0.11
30歲~34歲	1,572	22.19	1,422.8	22.26	0.07
35歲~39歲	1,591	19.78	1,438.4	19.81	0.03
40歲~44歲	1,773	15.84	1,622.9	16.07	0.23
45歲~49歲	1,987	11.59	1,802.3	11.64	0.05
50歲~54歲	2,048	7.03	1,829.8	6.96	-0.07
55歲 以上	1,871	3.88	1,686.5	3.87	-0.01
平均	1,611	10.00	1,477.5	10.00	

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은 年齡階層別 住宅 所有率과 그 價額의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즉, 40代前半의 住宅 및 附帶施設은 再所得價額으로 58%인 2,050千원인 데 비하여 50代後半의 그것은 각각 64.4%인 2,356千원에 이르러 있다.

요컨대 家口主年齡階層으로 본 耐久消費財의 換價所得과 支出을 비교한 所得再分配效果는 매우 有意한 水準이나 勤勞者家計所得에 대한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은 바람직한 方向이나 큰 효과는 없다. 이것은 所得分配와 再分配에 관련된 要因이 얼마나 多樣하며 복잡한 交互作用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反證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잠정적인 實證的 分析은 解放以後 經濟的·社會的 與件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특이한 過去의 集積을 一定 時點에서 投影하여 「크로스 섉손」資料로서 經度分析을 대신한 分析上的 制約에서 기인한 적지 않은 歪曲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20代의 家口主가 享有하는 所得水準이나 耐久消費財의 相對價格과 供給量 등이 오늘날 50代가 20代였을 때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分析의 偏倚(bias)가 現時點에 놓이고 따라서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가 壯老年家口主家計에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V. 要約 및 結論

所得分配를 貨幣的 所得의 概念이 아닌 國民生活水準 또는 消費水準이라는 觀點으로 보고 통상적인 經濟分析에서 消費로 간주하는

家計資産에 대한 支出을 耐久的 消費로 간주하여 家計資産의 分布狀態와 그 所得再分配機能을 고찰하였다. 家計資産의 蓄積은 家口主의 生涯를 통한 家口의 形成, 擴大 및 縮小로 인한 필요와 前世代로부터의 遺産相續 등에 따라 변화한다. 전통적인 經濟分析에 있어서와 같이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을 순간적 소비로 보면 家計資産의 所有와 이에 대한 支出의 分布가 所得分布와 일정한 관계를 지니어 할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資産階層別 家計資産分布는 所得階層別 分布나 年齡階層別 分布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分布의 樣態도 특이하다. 그러므로 家計資産은 家口主의 生涯나 世代間의 相續을 家計資産에 대한 支出과 그 便益의 흐름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所得再分配機能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分析된 家計資産은 建物 및 附帶施設과 耐久消費財로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所得水準과 生活樣相으로 보아 前者의 所有率이 家計資産 分布를 規定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都市勤勞者나 自營業者 家計의 所得階層別 家計資産分布가 農家の 그것보다 集中度가 높게 나타나 있다. 都市家計에 있어서는 農家家計에 비하여 耐久消費財의 所有額이 評價基準에 따라 59%~67% 정도 많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住宅保有率에도 불구하고 都市의 建物 및 附帶施設의 再調達價額은 農家の 그것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나 家口主 年齡階層別 家計資産分布는 年齡의 增加에 따라 增加하여 40代에 그 頂點을 이루고 그 이후 減少하는 일관적인 傾向을 보인다. 그러나 農家の 경우 家口主의 年齡階層에 따른 家計資産分布가 非農家와 같은 뚜렷한 增減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

다. 家計資産의 耐用年數에 대한 經過年數를 표시하는 換值率을 보면 30代 초반의 家口主가 가장 새로운 家計資産을 보유하고 65歲以上の 高齡家口主가 낡은 것을 保有하고 있다.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에 대한 實證的 分析結果는 所得階層別 再分配效果가 分析時點인 1977년에 거의 中立的인 것으로, 年齡階層別로는 상대적으로 有意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所得階層別 家計資産의 再分配效果가 中立的인 狀態로 나타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 같다. 첫째, 便益의 흐름(service flow)을 換價所得으로 推定하는 過程에서 定率法에 의한 減價償却額만을 인정하고 家計資産取得의 資本的 支出에 대한 金利를 인정하지 않아 換價所得이 低評價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70年代를 통하여 각종 耐久消費財가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이에 대한 支出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住宅 및 耐久消費財의 보급율이 점차 높아져 포화상태에 이르면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機能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家口主 年齡別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는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所得規模에 비교하면 現時點에 있어서 중요한 變數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시도된 分析이 「크로스 섉손」資料로써 經度分析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再分配效果는 建國以後의 經濟與伴으로 미루어 壯·老年層의 耐久消費財蓄積이 부진하였고 급격한 産業構造의 변동으로 農村에 蓄積되었던 建物 및 附帶施設을 放賣하여 家計資産의 保有가 많지 않아 低評價된 結果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오늘날의 50代나 60代가 오늘날의 20代와 같은 所得水準과 耐久消費財의 可

用性을 享有하였다고 한다면, 또는 오늘날의 20代가 오늘날 50代나 60代가 20代였을 때의 所得 및 生活水準을 큰 변동없이 인계받았다면 家計資産의 年齡階層別 所得再分配效果는 여기에서 提示된 實證的 結果보다 더 클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또한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여기에 試圖된 家計資産의 所得再分配效果의 分析은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會計學과 國民所得計定上의 準則을 이용하여 家計資産의 換價所得을 推定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分析에서는 家計資産의 質이나 機能面에서 오는 效用이 도외시되는 限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再調達價額으로 評價된 家計資産은 그 經過年數와 더불어 經濟的 價値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보수 또는 유지되고 있는 家計資産은 新品과 같은 機能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殘存價額의 價値만 지닌 家計資産이 骨董品으로서 新品價格 以上の 經濟的 價値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家計資産이나 資本「스톡」推定에 있어서 會計學的 保守主義나 産業政策 또는 投資振興政策 등 政策的 配慮로 制定되는 法定耐用年數가 「스톡」, 특히 純「스톡」(net stock) 概念에 미치는 影響을 조심스럽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分析을 통하여 또다시 실감하는 것은 所得分配과 再分配의 결정요인은 그 종류에 있어서 복잡다양하고 여기에 時間이란 變數가 加味되어 그 力學的 關係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模型으로 有意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圖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의 消費의 일부는 後世代의 人的資本形成에, 다른 部分은 當代의 人的資本의 維持와 形

成에 充當된다. 오늘의 收益性資本의 形成과 蓄積은 또한 어떤 時點에 있어서 後世代에 移轉, 相續됨으로써 오늘과 내일의 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分析의 對象이 된 家計資産도 같은 運動法則에 따라 所得分配과 再分配에 관련된다. 分配理論을 定立하기 위하여 앞으로 많은 理論的 實證的 研究가 계속

되어 이를 完善하기 위한 部分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試圖된 理論的 設定과 實證的 分析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實證的 部分은 1977年을 分析對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의 우리나라의 歷史的 經濟與件과 經濟形態가 작용한 事例(case)에 불과하다.

###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77年 國富統計調查를 위한 家計資産調查指針』, 1978.
- 朱鶴中, 「農業租稅 및 補助金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가을호.
- \_\_\_\_\_,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所得의 概念과 決定要因」,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의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30, 1979.
- 經濟企劃廳(日本), 『國民生活白書』, 1979.
- 經濟企劃廳 總合計劃局 編, 『所得·資産分配의 實態와 問題點』, 1975.
- 總理府統計局·經濟企劃廳, 『昭和45年 國富調查家計資産調查報告書』, 1973.
- Adelman, Irma, "Some Country Experience: Korea", H.B.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Atkinson, A.B. and A.J. Harrison, "Wealth Distribution and Investment Income in Britain",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0, No.2, June 1974.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4.
- Becker, Gary 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October 1962.
- Kendrick, John W., "Expanding Imputed Values in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5, No.4, December 1979.
- Lydall, H.F. and D.G. Tipping,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alth in Britain", *Bulletin of Oxford University Institu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23, No.1, February 1961.
- Sahota, Gian S., "Theories of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VI, March 1978.